

눈길로나 마음 길로나 입술로나 죄를 질 수 없는 이긴자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해

여러분들이 이제는 열심히 매달리고 열심히 제단을 쌓고 전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죠? 그러므로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눈길로나 마음 길로나 입술로나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러므로 보서는 안 될 것을 보지 말 것이며, 마음으로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을 품지 말 것이며, 입술로도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 안 돼. 앞으로는 은혜 간직을 1초 동안만 못 해도 죽는 때가 와요. 아시겠어요? 자유율법을 지키면 안 죽지만 자유율법을 어기는 순간 죽어 버려, 마귀가. 그러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때가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유율법을 완전히 100%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이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려야 들어올 수 없는 생활습관을 갖도록 완전무장을 해야죠? 그러니까 보서는 안 될 것을 안 보는 습관,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을 안 하는 습관,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을 안 갖는 노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한 마음을 유지하고 그러한 마음을 갖는 비결이 뭐냐면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거야.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해서는 안 될 말이 나올까?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보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될까? 이제그대로 눈길로나 마음 길로나 입술로나 죄를 지려야 질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됐을 때에 그는 이긴자가 되고 영원무궁토록 사는 완성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에 의해서 피가 변하는데 하나님의 피로 변하기도 하고 마귀의 피로 변하는 고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 저절로 하

나님의 마음을 항상 갖게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만 가지면 그는 하나님이 됐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죽지 않는 학설, 영생의 학설을 들었다는 자체도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죠? 이 세상의 종교가들이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죠?

영생하려면 영생의 대가를 치러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습관은 사람이 이제그대로 하나의 동물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고로 육체는 죽고 영혼이 천당 가고 지옥 가는 줄만 알고 있었던 잘못된 그런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죠? 사람이 죽으면 영이 죽는 것이요, 생명이 죽는 고로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천당 가고 지옥 간다는 말은 무지의 소치인 것이올시다.

이제그대로 오늘날 불교에서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굉장하죠? 그래서 오늘 장례식이 끝나면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구슬같은 사리가 몇 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도의 경지가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을 평가하는 사례가 있죠? 성철 스님은 불교인들이 볼 때에는 극락세계에 갔다고 믿고 있죠?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얼마나 잘못된 세상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참 구세주요, 생미륵불이요, 정도령 되시는 구세주를 만나 올바른 인생관을 갖게 되고 올바른 세상을 알게 됐으니 참말로 이것이야 말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구세주 조화성님

영생이라는 게 굉장히 굉장히 비싼 거야. 영생을 싼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영생 얻을 수 있을까? 영생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생이 비싼 것인고로 여러분들이 그 비싼 대가를 하나님한테 치러야죠? 자나 깨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평생을 해도 그 영생의 가치에 대한 값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생을 쟁취하려면 그만큼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생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늘 하나님만을 위한 생활을 해야

인색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영생이 있을까? 영생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게 돼있는 고로 영생을 받으려면 하나님한테 그 대가를 치러야 되

는 거죠? 하나님한테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안 돼.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기까지의 대가를 어떻게 치렀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시간 시간이 간중으로 말씀한 바가 있지만 그 말씀은 약간 분지 일도 말을 안 한 거야. 1초도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가운데도 놓칠까? 안 놓쳐. 이 사람은 1초도 놓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설교말씀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제그대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할 수밖에 없도록 이 사람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초개와 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목숨을 바치는 생활을 실제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합당한 신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첫 번째 신부예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신부가 되려면 하나님한테 잘 배야 돼. 하나님한테 잘못 되면 신부 자격이 없어. 미끄러지는 거야.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잘 보이는 마음을 갖고, 잘 볼 수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가운데서 생활을 해야 신랑 되신 하나님이 오시게 돼 있어요.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그대로 좌정하시지만 하면 부부일신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부부일신이라는 말을 하죠?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죠? 사실상 이 세상 부부들이 한 몸이야? 아니야. 이 세상 사람을 말 하는 게 아니예요. 하나님은 신랑이요 사람이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신랑으로 영접해서 부부가 되어 하나님과 한 몸이 됐을 때에 완성자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1초도 방심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1초라도 하나님을 놓치면 구원이 없어요. 일을 할 때나 언제나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정을 생각하고 이제그대로 다른 일을 하다가도 뛰어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정도로 1초도 놓치지 않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신랑 되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하나님이 무슨 물질이 아니예요. 은혜 자체가 하나님의 신이예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좌정이 되어야 하나님이 됐다가 되고 영생을 얻었다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어야 하늘나라도 가고 영원무궁

토록 사는 거지 하나님이 안 돼가지고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기계에서 나오는 알칼리수 축복을 해서 생수만 먹으면 하나님 되는 줄 알지만 똑딱하는 순간에 마귀가 들어와요. 옛날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있었던 아담과 해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 똑딱하는 순간에 마귀의 영에게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1초도 방심을 하면 안 되고 1초 1초를 각성한 가운데서 마귀의 영이 들어오려야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리라.” 그랬죠? 철장이 뭔지 아세요? 철장이 바로 말씀이 되면서 이긴자의 마음인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려야 들어올 수가 없는 철장으로 돼 있는 마음이야. 여러분들 보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어요. 완벽하게 철장으로 무장된 마음인고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려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여지없이 전멸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야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되고 하나님이 됐다가 돼서 영생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영생이라는 건 겉으로 잘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마음, 흠과 티가 없는 마음, 완전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완전자가 되고 완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1993년 11월 10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훈익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참성경

(11) 에브라임보다 므낫세를 더 사랑하는 요셉

요셉 56세에 부친 야곱의 장례식을 성대히 치렀습니다. 그 후로 멤피스의 집과 아버지의 가족들이 기거하는 고센 땅을 오가며 그의 나이 110세에 임종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친족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는 아내 돌을 두었는데, 본처가 베냐민의 딸이며 후처가 납달리의 딸이었습니다. 요셉의 이복 동생 납달리의 딸은 아들 마길을 낳았습니다. 요셉이 손자 마길을 무척 사랑하여 부요하게 만들자, 다른 형제들의 부러움을 사게 했습니다. 실바의 자식들인 갓과 아셀과 잇사갈이 그들의 딸을 마길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마길은 많은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증손녀인 마길의 딸과 유다의 손자 헤스론과의 결혼식도 지켜보았습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요셉의 이복형 단이 낳은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고 장자축복을 하셨기에, 차남 에브라임보다 맏아들 므낫세에게 쏟는 그의 애정이 더 각별했습니다. 두 아들을 단 형에게 맡긴 요셉은 두 딸마다 한 번씩 고센을 방문하였

습니다.

요셉은 고센에 찾아올 적마다 수레에 양식을 잔뜩 싣고 와서 형제들에게 배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왕의 수리상에 올릴 양고기와 낙타고기를 위해 왕의 짐승을 치는 목축지 라암셋에 들러 살찐 짐승을 선별하여 애굽의 궁전으로 몰고 갔습니다.!

1 바로왕은 경우(境遇)에 밝은 총리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궁전으로 모시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 의아히 여겼습니다. ‘야마 불품없는 모양새를 한 시골뜨기 노인이라 요셉이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부친을 소개하지 않았으리라’ 하고 바로왕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하는 바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총리 요셉에게 부탁하는 말로 떠보았습니다. “가족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나에게 소개하시오. 궁전의 요리를 위해서 키우는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부탁하고 싶소.”

요셉은 자기 부친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왕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왕은 나이 많은 야곱을 쳐다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요셉의 부친이 왕 자신보다 더 고귀하고 기품이 넘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왕은 노인 야곱을 공대하고 또 축복하며 물었습니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자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 년 하고도 삼십 년입니다. 나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헛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헛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고 또 바로왕의 만수무강을 축복하였습니다. 바로왕은 고센 지역 안에 있는 좋은 목축지 라암셋을

《4장 요셉》

(11) 에브라임보다 므낫세를 더 사랑하는 요셉

아버지 야곱의 가계(家系)를 이어받은 단은 라암셋을 방문한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버지의 일로 그들의 자녀들을 레아의 자식들이 낳은 자녀들과 혼인관계를 맺는 것을 꺼립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열두 형제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딸들만이라도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의 아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잘 타이르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의 아버지를 도단 광야의 구덩이에 빠뜨린 레아의 자식들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의 딸들과 혼인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식 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므낫세의 자손들은 레아의 몸종 실바의 자식들인 갓과 아셀 그리고 잇사갈의 자손과 혼인관계를 맺었으며 또 라헬의 자식과 라헬의 몸종 빌하의 자식의 자손과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또한 므낫세의 자손들은 레아의 막내아들 스불론의 자손과도 혼인관계를 맺었지만, 빌하의 아들 납달리의 자손들이 스불론의 자손들과 더 긴밀히 유대관계를 가졌고 혼인관계도 빈번히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신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에브라야곱의 소유로 주었습니다.

임이 아버지 요셉의 이복형이 되는 큰아버지 단의 딸과 결혼하였듯이, 에브라임의 아들과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야곱)의 본처 라헬에게 속한 단과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의 혈육과 혼인관계를 맺는 것을 선호하였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 사는 야곱의 자식들은 총리대신 요셉의 보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레아의 자식들인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는 그들 부족끼리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자손을 늘려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장자 단의 동복동생 납달리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자식들인 갓과 아셀, 잇사갈의 부족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번성하였습니다. 또 한편 레아의 막내아들 스불론은 요셉의 맏아들 므낫세의 부족과 레아의 여종 실바의 자식들인 갓, 아셀, 잇사갈의 부족과 라헬의 여종 빌하의 자식인 납달리의 부족과 혼인관계를 맺고 번성하였습니다.

요셉의 나이 11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에브라임의 후손 삼 대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은 대부분 100세를 넘어 살았으며 이스라엘의 장자 단은 113세의 나이로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복형 단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센에서 단 형께서 나의 아들 에브라임을 맡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훈육하였습니다. 전날에 아버

지 이스라엘께서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오른손을 올리고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리라’는 축복을 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 우둔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옮겨졌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단 형에게 옮겨진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에브라임이 단 형의 딸을 아내로 삼은 것은 저에게 큰 큰 축복이요, 자랑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친족들을 모아놓고 예언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어 이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다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서약을 시켰습니다.

“하느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너희는 그 때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그리로 올라가거라.”

요셉이 110세에 세상을 떠나자,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멤피스 교외에 피라미드(pyramid)라는 정방형(正方形)의 돌단을 높이 쌓았습니



피라미드 석실에 안치된 요셉의 시신

다. 그리고 그 돌단을 쌓은 그 피라미드 석실에 그를 보관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당신들은 여기서 내骸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26절; 요셉이 백십 세에 죽으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 서 입관하였더라*

안젤라